

《참으로 괴이한 선거》

《20대대선은 6무선거로 불리운다. 정권과 대안이 없고 로동과 진보는 실종된채 역대급 비호감후보간에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띠면서 불어친 이름이다. 초물정신은 사라지고 량당이 교착되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당장 무엇을 할것인가?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이 현 《대선》국면을 두고 평한것이다.

《정권교체》 대 《정치교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두 극으로 고착되다 싶어진 남조선의 《대선》은 후보들간, 여야당간의 치열한 대결전으로 치달고있는 형국이다.

《국민의 힘》은 무조건 《정권교체》를 웨친다. 현 《정권》의 부동산가격 폭등, 청년실업, 안보무능 등 정책실패와 부정부패를 부각시키면서 선거판을 대결판으로 만들고있다.

카멜레온도 놀랄 변신술

《역대급의 비호감선거》로 불리우는 이번 《대선》에서 량당과 후보들이 지지확보를 위해 모처럼 쓰면서 여당은 야당지지를, 야당은 여당지지를 끌어당기려고 변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적은 《선심성공약》들을 마구 랍발하는것도 그러한 실증이다.

피터지는 싸움판

두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이 상대측 후보에 대한 비판전이다.

《국민의 힘》은 자기 당후보와 가족의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 《날조된 거짓》이라고 피대를 둘러대며 극력 비호두둔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원로들과 청와대 출신인물들로 리재명을 적극 밀어주면서 윤석열의 병역피의혹과 검찰총장배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의 《1일망언》을 비롯한 언행실수와 처의 주가조작, 장모의 부패행위를 결코들며 맞받아친다고 한다.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끌어당겨보려고 놀라운 변신술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는 대장동개발특혜의혹혐의자들이 《윤석열은 원래 피뎠는 사람이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한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장동은 윤석열게이트(부정부패)》로 못박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의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 각계층이 《검찰대통령》이 통치하는 검찰공화국의 도래, 《정적들을 말살하기 위한 보복수사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사회적대립과 갈등이 고조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있다.

또한 《범죄혐의자들끼리 대결하는 추악한 선거》, 《덜 나쁘고 덜 무능한 (대통령)을 뽑는 괴이한 선거》라고 평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짙은 색으로 짙은 남조선정치권의 추악상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전쟁하수인의 대결망동

최근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 《3자공조》, 《포괄적동맹》강화에 대해 떠들며 미국과 일본이 벌리는 전쟁불장난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새해에 들어와 다국적연합반잠수함훈련, 다국적연합공중훈련 등을 연이어 벌려놓고 2월말~3월초에는 다국적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일본도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주도의 연합훈련에 적극 참가하면서 《전쟁가능 나라》로 변신하기 위한 군사대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이러한 미일상전의 불장난소동에 남조선당국은 《빈틈없는 군사적공조》를 운운하며 적극 참가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 각지에서 포병실란사격훈련, 통합상륙조치훈련, 해상기동훈련, 대규모야외훈련, 산악종합훈련 등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이 바라는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고 항구적인 조선반도의 평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일상전과 결탁하여 동족을 겨냥한 각

종 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것은 미일상전의 전쟁하수인노릇을 하겠다는것이 동족과 끝까지 대결일변도로 나가겠다는 적대적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평화》, 《대화》란 저들의 호전적,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선택한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의 길이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자멸행위, 겨례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범죄행위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정필

남조선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사이의 야권후보단일화시도가 불거짐이 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후보 윤석열에게 야권후보단일화를 제안하였지만 1주일 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의 힘》이 《후보사퇴설》, 《경기도지사후보추천설》 등 대가설을 퍼뜨리면서 정치모리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권후보단일화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던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

민의 힘》 대표는 《속좁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통큰 합의는 통큰 사람끼리 만나서 해야 하는거지 통큰 사람과 속좁은 사람이 만나면 복잡 터진다.》고 조롱해나섰다.

지어 안철수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다고 《국민의 힘》일부에서의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내부의 배신행위》라는니 하면서 《국민의 힘》의 내부갈등을 피하기도 하였다.

야권후보단일화는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그러하였지만 이번에도 《국민의 힘》의 단일화제기에 《국민의 힘》은 자기의 큰 덩지를 믿고 단일화를 하되 《국민의 힘》 후보가 철수해야 한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윤석열의 단일화제기에 《단 10분안에 끝낼수 있는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는데 그 말에는 상대방을 눈아래로 깔아보려는 오만이 배어있었다.

실제로 윤석열은 《물밑에서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협상이라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국민의 힘》 대표라는 자는 선거비용 등을 운운하며 《한쪽이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는 철수》라고 하면서 《국민의 힘》의 《대통령선거후보사퇴》라는 미묘한 말을 던지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이 제안한 여론조사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은 《지지률차이가 4배되는 상황에서 말이 되는가.》고 하면서 일축해버렸다고 한다.

단일화가 무산되자 《국민의 힘》은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희망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안철수가 후보를 사퇴하면 후에 잘 봐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야권후보단일화가 결렬된것은 단일화에 대한 방식차이의 문제도 아니고 견해의 차이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의 안중에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것은 없고 오직 권력이라는 비계명어리를 제가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는것이다.

야권후보단일화놓음, 이것은 권력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치시정배들이 연출한 너절한 정치막간극에 불과하다는것이 시간간 거에 따라 더욱 드러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국민의 힘》소속 어느 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녀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 가관은 그 비서관이라자 지금 《국민의 힘》이 광고하는 《녀성가족부패지》공약을 받기하고 광고하는 데서 주역을 놀랐다는것이다.

《해지발정제》, 《밤에만 쓰는것이 녀자의 용도》, 《마싸지너 고르는것은 인생의 지혜》와 같은 망발도 서슴지 않고 늘어놓는가 하면 해외에 나가 라세출을 주는 식당에 전문적으로 출입한것도 《국민의 힘》의 시정배들과 그 원조들이고

10월에는 《국민의 힘》의 청년대표라는자가 청년정책을 토론한다고 하면서 청년학생들을 모아놓고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인 다음 성범죄를 저질러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했고 올해 1월 말에는 《국민의 힘》의 선거대책위원회소속 변호사가 회사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되기도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이 《국민의 힘》을 가리켜 《성누리당》, 《색정당》이라고 야유조소하고 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도 남조선민심은 보수패당에게 침을 뱉으며 말한다. 개소리 3년가도 황모가 못되는 법이라고. 한일혁

극심한 민생고, 암울한 미래

최근 남조선에서는 극심한 민생고로 하여 민심이 흉흉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마저 치솟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차치되는 고통은 배가되고있다고 한다.

2019년부터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들고 2021년 12월부터는 연속적인 적자기록으로 하여 재정위기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세계적인 원자재공급난, 에너지가격의 급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상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고있다고 한다.

《국가》채무만 보아도 3500억US\$나 더 늘어나 현재 9300억US\$에 달하고 있다.

20대, 30대 실업자는 이전보다 더 증가한 상황이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0년만에 최대폭인 2.5%를 기록하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은 2021년 8.7%로서 지난 5년동안 가장 높아졌다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가격을 대비해보아도 남새와 물고기 등 부식물가격이 배로 올라 주민들의 식생활과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일자리가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 가계부채도 당연히 늘어나기 마련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지난해에 남조선돈으로 134조원 이상 불어나 약 1862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로서 사실상 최대기록이라고 한다.

《인생의 마지막보투가 날아가고있다.》, 《살고싶다. 도와달라.》, 이것이 민생악화의 진창속에 허우적거리며 구원의 손길을 애라게 찾는 남조선인민들의 절규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과 정치권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유지와 정쟁에만 여념없다.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미처 기억도 하지 못함에도 다른 광고용공약들을 마구 랍발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은 이렇게 피력했다. 《선거가 파렴치한 무리배들의 벼슬쟁탈전으로 변질된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어중이떠중이들이 저 잘났다고 나와서 되지도 않을 감언리설로 민중을 속여먹는

다. 그들이 거짓으로 쏟아낸 선거공약은 거의 다 실천행이 불가능한것들이다. 아예 처음부터 실행시킨지도 없으면서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헛소리, 헛소릴 마구 쏟아내는것이다. 짙한 색으로 짙지 않은것은 령령 빈 머리통에 품팡이가 덕지덕지 낀 사고방식의 《대통령》후보라는 사람들, 참으로 《한국》의 앞날이 걱정스럽고 난감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지사회》라고 하는 남조선의 실상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왜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서 죽으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남조선에서 제작된 연극 《이들병의 엄마》중에서 나오는 대사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생애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가 잃은 엄마들의 부르짖음이라는것이 연극을 본 관객들의 평가라고 한다. 이미 공개된것처럼 지난해 6월 남조선해군에서 한 사병이 선임병들의 폭언, 폭행, 집단따돌림으로 하여 자살했다고 한다. 선임병들은 그를 폭행하면서 《내가 죽어서 우리 배를 빨리

폭력과 폭행이 만연된 부패집단

떠나면 좋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 사병이 이에 대해 신고했으나 함양은 선임병들과의 《화해》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병이 자살한 후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폭행한 선임병들중 1명만 형사립건되고 나머지는 고작 3달분 감봉처벌을 받았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군내에 만연된 반인권행위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남조선군내에서 폭행, 가혹행위는 총 4275건으로서 그 이전 5년간 발생건수보다 600여건 더 늘었다고 한다.

폭행의 《리유》를 보면 인사를 안해서, 부름에 응답하지 않거나 늦게 와서, 표정이 마음에 안들어서 등이다. 군내 성폭력사건도 만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난 4년간 군내 성폭력사건이 폭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군내 성폭력사건은 2017년 10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말에는 999건으로 약 1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것은 폭행,

폭언, 성폭력사건이 급증하고있으나 실행선고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것이다.

남조선군부가 《병영문화개선》을 운운하며 군사법제도를 개선한다, 성폭력에방 및 대응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부산을 피우고 있지만 군내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는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후적으로는 군내 폭행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엄벌하지 않기때문》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한 시민사회단체도 《누게지출속법안으로 반복되는 군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게 하라》고 비판하였고 언론, 전문가들은 《군내 성폭력의 주범은 군사제이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남조선군내에서 폭력과 살인, 성폭행이 만연되고있는것은 폭력과 강권이 전통화된 미국식병영문화, 《인간은 인간에게 승냥이》라는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너를 죽여 내가 산다.》는 반인륜적가치관이 남조선군의 풍조로, 일상생활로 되었기 때문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섬나라의 변함없는 재침략욕

일본이 지난 22일 그 무슨 《다게시마의 날》 기념행사라는것을 또다시 벌려놓았다고 한다.

《다게시마의 날》 기념행사라는것은 일제가 1905년에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시마네현소속이라고 날조해놓은것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2005년부터 해마다 벌리는 정치판대국이다.

본과할수 없는것은 이번에도 일본당국이 차관급의 정부인물을 파견한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물것이라고 우기며 기어이 빼앗으려는 왜나라족속들의 파렴치성과 재침략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세기에 저지른 조선인강제용역범죄의 증거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고 발

악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령사의 흑막속에 묻어두려고 외국납 조계등을 벌리고있는것도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여론을 오도하여 재침략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이 아니다. 《적기공격능력》 보유책동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전쟁가능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책동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기도에 따른것이다.

그 무슨 《다게시마의 날》 기념행사라는것도 일본인들에게 조선

민족에 대한 복수심을 주입시켜 재침략을 실현해보려는 섬나라 족속들의 음흉하고 계획적인 모략국이다.

배일도 명백히 조선민족의 고유령토이다. 일본이 어리석은 재침략을 버리지 않고 령토강탈, 재침략등에 광분한다면 그것은 조선민족과 인류의 무자비한 징벌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재침의 《징검다리》로 만들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려야 한다. 옥철웅

